

“올림픽 성공 敎訓 科學진흥에 돌려야”

한국 藥學界의 泰斗

韓龜東 박사

대담 / 朴澤奎 <건국대 이과대학장/본지편집위원장>

날마다 2시간씩 산책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뽕기에 건강해 보이시는데 외출은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학술원 제4분과에 소속돼 있어 1개월에 한번씩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요 특별한 건강관리법은 없고 역촌동에 살고 있으므로 왕복 2시간 소요되는 서오능까지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있지요. 약은 듣지않고 체중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 기억력이 쇠퇴해가는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성장하셨지요.

서울 종로구 예지동에서 태어나서 원남동 서울대학병원쪽으로 이사했는데 명륜동4가 승사동(崇四洞)에서 살았지요. 두분 누님 계시고 3남매의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요. 6년제 소학교에 11세에 입학했는데 이미 논어, 맹자 등을 서당에서 배운 후였어요. 어의동(於義洞) 보통학교(효제국민교전신) 4년을 수료. 그후 제2고보(현재 경북고교)를 1927년에 졸업해서 2회 졸업생이예요. 5년제 중학교를 졸업했으나 집이 원래 가난해서 학업



◇ 우리나라 약학계의 산증인인 학부총장 박사 최준기 박태규 본지편집위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을 계속할 엄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당숙께서 학비를 부담해 주셔서 조선약학교(서울대약대전신)에 입학했어요. 이 조선약학교가 경성약전, 서울약학대학, 서울대약대로 발전한 셈이지요.

27년 조선약학교 입학

선생님이 학교에 다니실 때의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학교의 여건 등을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어의동보통학교는 선생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고 1년동안은 칼찬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1919년 3·1만제사

건이 일어나서 유허정책을 쓰게 되어 선생님들이 칼을 차지않게 되었어요. 제2고보 재학시절에도 조선인교사는 세분뿐이었지요. 조선약학교는 1915년에 설립됐는데 일본인 약업자들이 자기들이 불편해서 만든 학교지요. 제가 1927년에 입학할 당시에는 그래도 시설이 조금 있는 편이었고 그해 일본문부성이 승인하는 전문학교령에 의해서 경성약학전문학교로 개명됐어요. 3년제인 이학교를 1930년에 졸업하고 가난한 집안살림을 도맡아야 할 입장이라 공부도 계속하고 수입원도 확보하고 가정살림도 전담하는 세기지를 충족



였으므로 연구의욕이 왕성했어요. 그래서 구급약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설과 연구비를 강력히 요구해서 뜻을 이루었지요. 한약부, 검명부도 연구형태의 실험실을 갖춰 상당히 확장되어 인원도 30명 정도나 되었어요. 당시 2백여종의 일상식품을 선정해서 영양가연구를 하였고 1930년대말과 1940년대초에 걸쳐 한국의 산야에 자생하는 식용식물 즉, 산채나물 같은 것의 영양가를 분석하였지요. 그리고 전국 43개소의 온천을 선정해서 온천성분을 조사하였는데 앞서 이야기한 영양관계조사는 한국인들만으로 하였고 온천조사는 일본인도 합쳐서 제 책임하에 하였지요. 저와 같은 연배의 체예석교수(전 숙대학장) 등과 함께 일을 하였어요.

8·15해방되면서 국립화학연구소로 개명되었는데 화학연구소가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당시 위생시험소 이외에 기용숙박사(전 서울대 의대교수, 작고)가 삼청동소재 세균검사소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일제때이 두개의 시험소가 있었는데 위생은 화학을 주로 하게 되니 보건후생부 산하의 국립화학연구소가 되었지요. 이 연구소의 초대회장으로 부임했으나 약전이 서울약학대학(1946년 당시 사립)으로 승격하게 되어 화학연구소에 근무한지 채 1년도 못돼서 대학으로 옮겨졌어요.

1946년에 서울약학대학교수로 시작해서 교수생활에 발을 들여 놓았는데 위생 화학을 담당하였어요.

「승도藥大」 6·25로 霧散

한선생님께서 개성에 승도약학대학을 설립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셨는데 1950년에 결국 빛을 보지 못한 이 약학대학설립에 얽힌 에피소드를 이 기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승도약학대학 설립은 이제 40여년전

하기 위해 취직을 했어요.

위생시험소 15년 근무

선생님께서 경성약전을 졸업하신 1930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15년동안 조선총독부위생시험소 연구원으로 연구생활을 계속하셨는데 당시 국내 연구소로는 희귀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5년동안 근무했는데 처음 입소할 때는 초창기였으므로 빈약하였지요. 일본인 2명, 급사 1명 저까지 합해서 겨우 4명뿐인 시험소였어요. 실험실이라야 방 1개였고 시설이라고는 거의 없는 형편이었지요. 처음에는 주로 약품제조허가를 내주는데 필요한 약품검사를 했는데 1년쯤 지나서 소장이었던 약대출신 일본사람이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시험소 확장계획을 입안, 실현에 옮겨졌지요. 당

시 총독부건너편 지금의 정부종합청사자리에 근사한 건물을 지었지요. 연구실, 기구도 확장하게 되고 새로운 부서도 만들었어요. 영양부, 한약부, 검명부(檢明部:검사해서 밝힌다는 뜻)가 새로 구성되었고 이렇게 필요한 시설을 최소한 갖추게 되고 문헌도 구비하게 되면서 2년쯤 지나니 겨우 연구소형태를 갖추게 되었지요.

自生식용식물 영양분석

이 위생시험소연구원 시절에 선생님 나름대로 한국식품의 영양가연구라든지 전국 온천조사 등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과학연구를 주도하셨는데 이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시험소는 관청이었으므로 학술적인 연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인소장이나 저나 모두 비교적 학구적인 사람이

의 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고 격동기 우리나라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제게 남아 있다고나 할까요. 인삼의 고장인 개성에 약학대학이 있어야겠다는 개성 유지들의 뜻이 모여져서 송도약학대학 설립이 추진되었지요. 개성유지들이 출연하고 송도고보재단이 중심이 되어 대학설립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최규남선생(전 서울대총장·문교부장관, 작고)도 이 재단 이사였어요. 내가 총책임을 지고 홍문화박사(현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일했지요. 실험실, 최소한의 도서관도 확보하고 33명의 신입학생을 선발하였지요. 이 신입생은 홍문화교수, 그리고 약대 나의 조교였던 이왕규(李王圭, 이민)가 함께 입학사정을 해서 결정하였어요. 그런데 입학식이 1950년 6월 26일로 잡혔고 교사는 개성 송약산 밑 송도고보의 박물관이었지요. 나는 24일에 서울집에 잠깐 다니러왔는데 집일을 보고 24일 저녁에 개성에 내려갔어요. 학교설립 때문에 주로 개성에 머물렀는데 24일은 송도고보 소풍날이었고 저녁에 교사들이 교장택에 모여서 술자리가 마련되었어요. 나도 함께 어울려 마셨지요. 다음날 일요일 아침 4시에 화장실에 다녀오고 잠을 청하는데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6·25가 터진 겁니다. 홍문화선생은 일요일저녁에 서울을 출발하기로 했는데 개성에 올 수 없어서 결국 나만 개성의 교장택에 1개월 머물렀어요. 이리하여 1950년 6월 26일 송도약학대학 입학식은 무산되었지요. 서울에 와서 숨어살다가 수복후 1950년 9월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초대학장으로 부임해서 61년까지 10여년간 학장을 지냈고 66년까지 교수로 봉직했지요. 주로 생물화학강의를 담당했는데 당시의 제자로는 이상섭 교수, 한병훈교수와 중앙대약대의 한덕

용교수 등이 있지요.

서울대 약대 초대학장

선생님은 한국약학계의 태두로서 불모지에서 우리나라의 약학연구를 궤도에 올리는데 견인차역할을 하신 분으로 후학들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에 임하셨습니까?

약용식물의 성분, 효능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였는데 68년에 반년정도 밀라노에 가서 밀라노대학교수들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어요. 식물회합의 성분인 디테르펜(Diterpens)의 화학구조를 규명하여 테트라헤드론(Tetrahedron)잡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밖에 여러가지 약용식물의 성분분석을 했습니다.

본년에 참여하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선각자들은 대부분 해당분야의 학회를 설립하는 일에 앞장섰고 각 학회를 오늘의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대한약학회를 창립하셨지요.

1930년대에 조선약학회를 일본인들이 만들었는데 해방이 되고 한국인들이 이 학회를 인수한 셈이지요. 해방후 6·25사변때까지는 조선약학회로 존립하였고 1952년 피난지 부산에서 20여명의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대한약학회를 창립, 약대학장이었던 제가 초대회장이 되었어요. 1952년부터 67년까지 회장으로 있었는데 초창기 거저처럼 돈을 얻으려 다녔던 일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떠오릅니다. 오늘날 학회의 규모가 커지고 학회 활동이 활발한 것을 지켜보면 매우 흐뭇합니다.

학술원회원 그리고 생약연구소소장을 맡으셨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954년에 학술원회원이 되어서 현재까지 학술원회원으로 있어요. 생약연구소는 일정때부터 경성대학 의학부부설기관이

었는데 해방후에 서울대학교 직속 생약연구소가 되었어요. 생약연구소가 독점에 있었는데 소장이 되고 나서 이 부지를 처분하고 경기도 소사에 옮겨 남은 재원으로 연구소를 확장하는데 사용하였어요. 또한 서울의대 합춘원의 생약연구소는 처음에는 의대의 약리학교실을 빌려서 일했지요. 생약연구소를 재건하는데 우인근교수와 노력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1974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74년부터 5년간 덕성여대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지요.

증손자까지 후손 22명

선생님 가족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2남5녀로 3명의 증손을 포함해서 22명이나 됩니다. 아내(김옥봉(金玉鳳) 여사 82세)와 1928년에 결혼해서 88년에 회혼을 맞아 미국에 살고 있는 딸집에서 회혼식을 가졌지요.

약학계의 원로로서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계, 과학교육계의 스승으로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비결은 선수양성, 시설현대화, 국민들의 올림픽을 성공시켜야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참여에 있었다고 믿어요. 과학기술진흥도 이러한 바탕위에서 성공할 수 있지요. 과학기술자양성, 연구시설, 도서 등을 갖추어야하고 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합의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파충도 올림픽성공의 추진체가 되었던 올림픽조직위원회처럼 과학기술을 진흥시키는 조직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보람된 삶을 누리시면서 한국과학기술계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후학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